

# 건축의 '절차'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Procedure of Architecture

承孝相 / 건축사사무소 이로재  
by Seung Hchloh-Sang

나는, 건축을 공학 또한 기술분야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또한 건축이 예술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기를 위하여 그속에 억지로 꾸역꾸역 집어넣으려 하는 태도도 참 싫어한다. 그런 발상자체가 지극히 못마땅하며, 내가 믿기로는 그런 레벨에서 접근되는 그 건축은 그 결과를 보지 아니하여도 뻔하다. 그것은 건축의 본질과 분리되어 있어 항상 주변에서만 맴돌 뿐이다. 건축이 그러한 예술적 혹은 기술적 속성을 가질 수는 있되 적어도 그들을 포함한 더 큰 범주의 문화적 소산을 가리킴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건축과 예술 특히 조형예술. 이 둘 중에서 어느 분야가 인간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것일 것이다. 사람에 따라 또 그 사람의 변하는 감정에 따라 사물에 대한 감동은 상대적으로 다르며 그 감동을 절대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더욱이 그 우열을 논하는 것은 부질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조그만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그 감동은 어느 예술이 던지는 감동과 그 무게에 있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임을 믿는다.

그 이유는 결과로서 나타난 그 건축이 탄생하기까지의 장엄한 '절차'의 문제 때문이다. 밀실에서, 혼자만의 사유와 관념과 집착의 결과로서도 예술은 창작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으나, 건축은 그렇게 작업되어 질 수 없고 그것으로만 충분치 못하다. 혼자만의 사유와 관념은 중요한 것이긴 하되 건축의 일부일 뿐이며 그 사유와 관념을 구현하기까지 험하디 험한 경로를 거쳐야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도로 발달된 교육을 받고 혹독한 전문훈련을 거쳐 영감에 가득 차게 된 건축가라도 스스로만 건축작업을 할 수는 없다. 반드시 누군가 일을 주어야 하며 그 일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뿐인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혹은 직원으로부터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 특히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들로부터, 그 창작의지는 현실성을 이유로 곧잘 훼손되어진다. 일을 맡겨준 건축주로부터는 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는가.

때때로 모욕적 대우와 결코 넘을 수 없는 두터운 벽앞에서 좌절

당하기 일쑤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창작의지는 자꾸만 그 색깔이 바래간다. 도대체 이해안되는 이유로, 항변 한 번 못하는 채로, 회한한 심의위원들에게 무참히 난도질 당하고 발길질 당하며, 전가의 보도를 든 허가 공무원 앞에서 우리의 창작의지는 한없이 초라한 물골이 된다. 그것만이든 그래도 조금은 낫다. 양상한 물골이 된 창작의지를 놓고 그래도 개념은 살았다고 자위하며 공사장에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꿈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다. 무슨 놈의 '혼을 담는 시공'이 그러한지, 날이 갈수록 손도 마음도 더러워진 현장속에서 그 창작의지는 질식직전에 다다르게 된다. 가장 싫은 것이 준공식날 불러가는 일이다. 남들이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기는 결단코 불편해 있다. 상처투성이 뿐인 창작의지를 뒤에 두고 축 늘어진 어깨로 돌아오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건축가의 초상이 아닌가.

그러나, 그래도, 얼마후 그 건축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는 어떤 이의 얘기를 행여 들을 수 있다면, 그 건축에서 감동을 받았노라는 조그만한 전갈이라도 올때면, 그리고 그전같이 우리가 존경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라면, 우리는 그 어둡고 길었던 그 건축의 '절차'를 이겨내었다는 성취감으로 나약해진 건축의지를 위로하게 되며, 더불어 우리는 우리를 건축하는 일에 종사하게 해 준 신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자못 대견해진 심정으로 우리가 가졌던 원칙에 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발견하면서 또다른 불리움을 기다린다.

이 험난한 '절차'를 거친 우리의 건축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대한 것이며, 그 감동을 이뤄낸 건축은 참으로 장엄한 창조적 작업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예술가의 어떤 작품보다 건축이 평가절하될 수 없음을 바로 이러한 건축의 '절차'가 예술의 것과는 너무도 다르고, 구체적이며 또한 처절하고 절박하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그 감동의 무게도 당연히 다른 것이다.

우리는 옛적부터, 결과 보다는 그 결과를 있게 한 절차를 더욱 소중히 여겨온 민족이다. 우리의 도덕과 예법은, 아무리 결과가 훌륭하여도 그 절차가 도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요 하고, 우리가 소중히 간직한 윤리 밖으로 내몰았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격조와 품위에 가득찬 아름다운 문화를 일구어 온 것이 아닌가.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 '잘 살아보세'라는 결과만 강조하는 졸부의 논리와 단선적 사고방식이 온 강토를 뒤덮더니 우리의 고즈넉한 문화는 페인트칠로 칠갑을 하며 절차는 무시하고 번쩍이는 결과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하였다. 뜻있는 지식인은 그것이 이루어진 박정희 군사독재시대를 가리키며 박조문화(朴朝文化)라 자조적으로 지칭했던가. 그후 30여년이 지나, 그러한 정당한 절차가 없는 파편적 목표가 수치로만 도달된 지금, 그래서 소위 잘살아지게된 지금, 우리의 사회는 드디어 부러지고, 터지고, 끊어지고,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고도 당연한 현상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망연자실해 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절차'를 일으켜 세워야 할 때이다. 비록 그 '절차'가 모멸스럽고, 가당찮은 것이라도, 귀찮고 번잡스럽다 하여도, 우리는 거기에 일일이 그리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결과가 급하다고 하여서 그 절차는 우리가 피할 문제가 아니며 무시할 장애도 아니다.

그럼에도, 요즘 정부에서, 또 일각에서 결과에 다시 집착하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사회에 질게 드리워진 박조문화(朴朝文化)의 두터운 잔재를 새삼 느낀다.

이 꺾대기를 떨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건축문화는 아득히 멀며, 우리의 건축은 예술과 기술의 분야에 여전히 문전걸식만 하고 있을 게다.